

6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한자리에...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오백회'

생맥주 500cc 딱 한잔... 토론도 하고 기부도 하고

교수와 학생, 선후배가 매주 월요일 만나는 모임이 6년 동안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모임의 이름은 '오백회'. 이름만 놓고 보면 500회 이상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한 명칭이거나 회원 모집 목표가 500명인 모임쯤으로 생각된다.

형식상으로는 매주 월요일 만나 맥주를 마시는 모임이다. 그러나 술꾼이나 맥주 애호가들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 맥주를 마시며 참가자 전원은 생맥주 500cc 한 잔만을 마셔야 하며 추가 음주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모임이다.

오백회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과 교수, 동문이 주축이 돼 지난 2003년 9월 1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6년 동안 열리고 있다.

시작은 신방과 이의정 교수와 박세중 전남대 홍보과장, 학생들이 주축이 됐지만 이들과의 모임은 아니다. '지역 언론과 한국 언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 '신방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전남대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만나 생맥주 500cc 한잔을 마시며, 정확히 1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한 시간 동안 미리 정해진 주제를 놓고 토론하거나 초청 인사의 얘기와 함께 대화가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과정과 내용은 아주 편안하다.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오백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모여 한 시간 동안 생맥주 500 한 잔만을 마시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이다. 지난 6월 1일로 300회 모임을 가진 회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오백회 제공>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토론'이 문화가 아닌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이 모임에는 일곱 가지의 규칙 같은 것이 없다. 하나, 월요일 오후 6시에 모인다. 둘, 새내기 그날 모임을 관리한다. 셋, 참석자는 회비 1천원을 즉시 납부한다. 넷, 참석자는 맥주 500cc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다섯, 맥주를 추가 주문할 수 없으며 기본안주에도 만족한다. 여섯, 그녀의

경비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일곱, 7시가 되면 해산한다.

이 같이 과소한(?) 규칙 때문에 회수를 거듭할수록 개최 장소 물색이 어렵다고 한다. 수십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고작 맥주 한잔씩, 안주는 주문도 안하고 공짜로 제공되는 뷔페만 축내기 때문에 업소 주인들이 예약을 기피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회비 부담이 없고, 술로 인한

난잡함이 없기 때문에 모임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어느 때는 100명 가까이 모였다가도 연휴나 방학, 시험 등 특정 일면 서너 사람만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주를 이어온 것이 지난 달 29일로 304회를 넘겼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참석자는 예외없이 1천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돈은 맥주 값도 부족하다. 나머지 계산은 초청인사나 참석자 중 가장 연배가 있는 선배가 한다. 지금까지 사회에 진출한 다양한 직종의 동문과 교수, 강연회 전 총장도 총장 재임시 모임에 참석했다.

예초 오백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 매달 500만원의 기부금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매달 1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회원 500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달에 500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조성해 학생들의 실습비 등 언론학 발전을 위한 기금 등 공적인 용도로 쓰려는 의도다.

물론 기금 조성이라는 1차적 목적도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후배를 위해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숨은 뜻이 있다.

이의정 전남대 신방과 교수는 "300회를 넘도록 단 한차례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지역 사회에서 기부문화와 토론문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임이 됐으면 하는 희망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청소년공부방 사업지원금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조희하)는 8일 태인동, 광영동 청소년공부방 3곳에 사업지원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 <광양제철 제공>

엄마 잃고 아빠 암투병 세 자매에 담양군청 직원들, 온정 베풀어

담양군청 직원들이 엄마를 잃고 아버지가 암 투병으로 힘든 처지에 놓인 고서면의 세 자매에게 온정을 베풀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서면 분향리 유인수 씨(43) 가족을 돕기 위해 주영찬 군수권대행과 주민복지과 직원 20여명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100만원을 유인수 씨에게 전달했다.

2년 전 간경화로 아내를 잃고 본인마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유인수 씨는 "원래 풍족한 살림이 아니었던데다 아내와 내 오랜 병원 치료로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져 칠부지 세 딸 다경이(11·고서초 4년)와 희정이(9·고서초 2년), 연희(6·유치원)를 고생시키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유 씨는 다행히 고서면사무소에 기초생활1급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병원비와 생계비 등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 씨 가족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고서면 복지계(061-380-3761)로 연락하면 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위 아 더 월드' 합창속 팝의 황제 하늘 나라로

마이클 잭슨 장례식 가족·팬 등 2만여명 참석

전설이 된 '팝의 황제'가 지상에 영원한 이별을 고했다.

팝 역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기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이 7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잭슨의 가족과 일반 팬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날 장례식은 가수 스모키 로빈슨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다이애나 로스와 벨스 만델라의 조사를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곧바로 황금색 관이 무대 중앙으로 옮겨졌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상단을 붉은색과 노란색 꽃으로 단장한 잭슨의 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에 할리

우드 '포리스트 론' 공연장에서 잭슨의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비공개 장례식을 치른 후 검은색 영구차에 실려 스테이플스 센터까지 운구됐다.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는 잭슨이 '잭슨 파이프' 시절 불렀던 명곡 '아이 비 데어(I'll Be There)'를 트레이 로렌즈와 듀엣으로 열창하면서 추모공연의 막을 열었다.

장례식은 고인의 다양한 생전 모습이 무대 중앙스크린을 영상으로 수놓은 가운데 시종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노래와 고인의 생전 기억을 되살리는 추모사가 번갈아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시간이 넘게 계속된 장례식은 예초 예상했던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할 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내 차분하면서도 고인에



7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서 무대 앞에 고인의 유해를 담은 관이 장미에 뒤덮인 채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감동의 무대였다.

장례식 말미에는 추모사와 추모공연을 했던 인사들과 유족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와 추모객들과 함께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와 '힐 더 월드(Heal The World)'를 합창하는 감동을 연출했다.

특히 잭슨의 딸 패리스 마이클 캐서린(11)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아빠를 너무

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잭슨 팬과 추모객들이 함께 눈물을 쏟았다.

이날 스테이플스 센터 주변에는 새벽부터 세계 곳곳에서 날아온 추모객들이 몰렸으나 경찰이 장례식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장례식장 입장권을 얻은 1만7천500명에 한해 입장을 허용해 큰 혼잡은 없었다.

잭슨은 지난달 25일 LA 홈비힐스 자택에서 갑자기 급성심장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7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음악계의 전설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서 마이클 잭슨의 자녀(왼쪽부터) 패리스와 프린스 마이클 2세, '블랙티'이란 별명으로도 알려진 프린스 마이클이 뒤편에 서있는 고모 라도야 잭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가수 강원래·체육인 이윤리 국립재활원 홍보대사에

국립재활원은 가수 강원래(왼쪽) 씨와 체육인 이윤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안도군청 근무 시 교통사고를 입어 장애인이 된 국가대표 사격선수 이윤리씨는 지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사격선수로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연합뉴스

내방

▲유근성씨(광주지방조달청장) ▲한을석씨(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규선·유근자씨 장남 흥진군 이통회(진월초 교장)·나현욱씨 장녀 보라양=11일(토) 오후 1시 서울 건설회관 2층 웨딩홀.
▲정형도(전 조대부고 교사)씨 차남 용중(사법연수원생)군 서정범(아남전직)씨 장녀 미혜(서울 학원 강사)양=11일(토)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목)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525-7393.
▲본량초교 제23회 동창회(회장 오태) 정례회=11일(토) 낮 12시 황룡강변 신승산대교 아래. 011-666-0660.

알림

- ▲구림초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개최=11일(토) 오후 6시30분 원앙회관. 062-375-0770.
▲보성중학교 14회 총동창회(회장 강진성)=11일(토)~12일(일) 보성 다비치콘도. 010-3605-0505.
▲송원고 11회 동창회(회장 황병성) 가족동반야유회=12일(일) 오전 10시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개미마을. 061-373-6678, 016-9225-4984.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영) 정기모임=9일(목) 오후 6시30분 바다이야기. 062-675-5250.
▲곡부공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공양진) 월례회=13일(일) 오후 7시 북구 유동 함양샬럿. 062-515-5757.

모집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光山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모집

-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방학 특강 모집= 청소년 다도, 예절 교실 21일~8월 20일(매주 화, 목) 오후 4시, 총 10회 초 3~중 3, 회비 3만 원, 서예(매주 월, 수 오전 10시), 요가(매주 월, 수 오전 10시), 노래교실(매주 화 오후 2시) 쌍촌동 원운 방송국. 062-232-7223~4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

- 602-2278.
▲놀이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회선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령자는 회선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중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중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

- 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까지 및 한 글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볼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부음
▲김길현씨 별세 재철(공간기획 대표)·재동(G&P파트너스 사장)·재수(서울보증보험 잠실지점장)·재길(플레이즌 대표)씨 부친상=발인

- 10일(금) 목포시 삼성장례식장. 061-244-2266.
▲강금덕씨 별세 김규용·김용·복실(남용)(우월안검설 대표)·귀임씨 모친상=발인 10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영필씨 별세 종철·준철·은선씨 부친상=발인 10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영남씨 별세 김용구·용택·용순·용미씨 모친상=발인 9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권연심씨 별세 채희진·희조·영숙·호조·희양씨 모친상=발인 9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